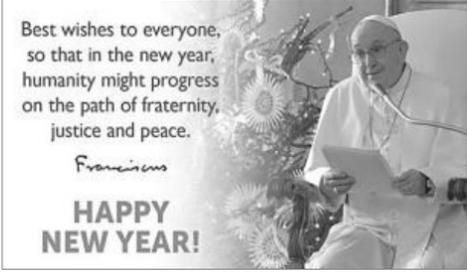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교황“서로 돌보며 치유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1일 신년 미사를 통해 전한 강론에서 인류에게 ‘마음을 위한 백신’ 역시 필요한 해라며 서로를 돌보며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의 신년 메시지는 미사를 대신 집전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주거경)이 낭독했다.

교황은 다리 통증 때문에 전날 송년 미사에 불참했고, 이날 신년 미사 역시 집전하지 않았다. 84세인 교황은 척추 디스크로 인한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다.

교황은 “우리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있다.”며 “새로운 시작과 치료를 희망하면서 돌봄 또한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몸을 위한 백신과 함께 마음을 위한 백신도 필요하다. 이 백신은 바로 치유”라면서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하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돌본다면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모두가 위로의 말과 부드러운 손짓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자신과 주변인들과 평안을 이루기 시작한다면 평화는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교황은 미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공식 관저인 사도 궁전에서 열린 삼종 기도회를 통해 새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도회에서 “새해 평화와 평온을 기원한다.”며 “작년 인류의 삶을 얼룩지게 한 고통스러운 사건들, 특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칭))은 다른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려를 공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말했다.



### 배우고 행하라 (시119:129-136 딤후 3:12-17)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새롭게 되자, 변해야 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로 변화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무엇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밥먹는 습관 한 가지, 양말 벗어던지는 습관 하나, 말버릇 하나라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변화에도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변화는 말씀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 119:130).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시 119:105).

말씀의 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길의 방향을 밝게 비춰줍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성경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함을 밝혀주며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담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그 구원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와 친교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 있지 않은 교제는 죽은 교



제입니다. 우리 입을, 우리 혀를 말씀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한 걱정과 부족함과 보람과 기쁨을 함께 대화하면 이것이 말씀 안에서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교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16).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법률가가 되고, 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연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옳은 것’과 ‘바르게 함’과 ‘옳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유익한 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려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아래 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 들일 수 있어야 교훈을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선한 일꾼이 되게 합니다.

“이는[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7).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자주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일꾼이 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새번역, 딤후 4:6).

여기에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또한 일꾼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르면 세상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따라야 예수님의 일꾼이 됩니다.

말씀은 시간을 내어서 노력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만나는 영혼에게 힘을 주는 관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명의 능력이 불처럼 나오고, 평가가 선포되고, 화해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교육받고, 축복 받고,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박병욱 목사-



# 사장님, 링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 Tel.(323)641-7907

1313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